



[라이프] 막 오른 유통가 총결산 어워즈 L2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다문화·탈북민 교육 돕고, 낙후지역에 온정을 수은이 그리는 내일 '함께, 더 멀리'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수출입은행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수출입은행이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힘든 구성원을 보듬어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길을 오래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은은 대외협력기금(EDCF)과 남북협력기금(IKCF)을 운용·관리하는 특성을 살려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 탈북 가정과 해외 빈곤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2년 대기업에 금융을 지원해 발생하는 이자수익 일부와 직원들의 인건비 절감분을 재원으로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희망씨앗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자립지원 ▲신(新) 구성원 사회적응 ▲글로벌 사회공헌 ▲친환경 활동으로 4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韓, 다문화 가정... 자립기반 지원

수은은 우선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은 프로보노 봉사단'을 꾸려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보노는 시민 또는 기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기부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은 프로보노는 소외계층을 고용하거나 저소득층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경영전략, 마케팅, 회계, 법률, 통번역 등의 전문을 지원하고 있다.

수은은 또 본부별, 지점별, 동호인회, 신입행원 등으로 소그룹을 꾸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소그룹은 취약계층 앞 도시락 배식지원과 독거노인 지원, 쪽방촌 지원 봉사등을 했다. 소그룹을 통해 후원한 금액은 2284만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100명당 6명은 다문화가정의 아이이다.

수은은 전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에 지원한 차량만 총 90대(16억5000만원)에



1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수출입은행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안양천 일대에 청단풍 등 2000여 그루의 나무들로 조성된 '희망의 숲'을 개장했다. (왼쪽부터)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권우석 수은 전무이사, 김정호 양천구 부구청장, 김석권 생명의 숲 공동대표. 3 수출입은행과 캄보디아 붓벵마을의 1사1촌 자매결연식을 맺고 있다. /수출입은행

4가지 사회공헌활동 '희망씨앗' 저소득층에 법률 등 전문성 기부 다문화가정 자녀 위한 교육 후원

라오스 등 빈곤국가 보건의료활동 도심 속 숲 조성 등 친환경 사업도

달한다. 아울러 탈북민을 위해 탈북민 대안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탈북자녀의 교육사업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수은 관계자는 "취업 아카데미 등을 지원해 이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남북 예술인 합동공연 등 행사를 지원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EDCF 협력 교육·보건의료 지원

수은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저소득 빈곤국가의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은 물론 긴급물품을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주된 대상국가는 라오스·캄보디아·가나·탄자니아·에티오피아로 5개 나라 모두 EDCF 중점 협력국이다.

지난 2012년 수은은 캄보디아의 붓벵마을과 1사1촌을 맺고 마을을 살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물 공급을 위해 우물을 짓고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의무실을 설치, 의약품을 공급했다.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을 설치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건물을 건축했다.

2013년에는 방글라데시 아시아여성대학과 '차세대 글로벌 여성리더 육성 인턴십'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시아여성대학은 12개국 500여명의 개발도상국 여학생을 선발해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수은은 인턴으로 선발된 아시아여성대학생을 초청해 한국EDCF 인턴십을 후원한다. 지난 10월 수은은 아시아여성대학에 2000만원의 도서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수은은 지난 7월 파키스탄 전역에 발생한 홍수피해 긴급구호를 위해 1억원을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도국 지원봉사단체인 코피온의 기업시민봉사단으로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은 관계자는 "금전적 지원 뿐 아니라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낙후된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사랑의 온정을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최근 도심 숲 조성 등 친환경 사업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 또한 멀리가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으로,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은은 안양천 일대에 미세먼지 흡수를 고려해 청단풍과 은행나무 등 2000여 그루의 나무들을 심어 희망의 숲을 조성했다.

수은 관계자는 "희망의 숲은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누구나 숲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했다"며 "국책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손흥민 vs 네이마르, 8강길목서 만난 '동갑내기' 맞대결 /사진 뉴시스
▲23년 전 히바우두 있던 브라질 꺾었다...김도훈 골로 격침

▲BBC "한국서 손흥민은 축구를 초월한 선수...슈퍼히어로"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가나...스페인 언론서 이적설



▲워싱턴포스터 "조규성, 이번 월드컵 최대 수혜자" /사진 뉴시스
▲추신수, SSG와 재계약...연봉 27억 →17억원